

01 교회소식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 된 순간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요청으로 이수진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이뤄진 러시아·핀란드 순회 집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것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일에 배려와 섬김으로 하길 원하신다.

03 기획특집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인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04 간증

대지진 속에서 체험한 주님의 사랑

네팔 대지진의 재난 속에서 네팔만민선교센터와 196개 지역교회와 교세 땅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간증.

만민뉴스

제692호 2015년 6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다!

러시아·핀란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지난 6월 중순, 러시아와 핀란드에서 강사 이수진 목사(사진 ①)를 초청해 진행된 찬양 페스티벌 및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에서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됐다. 사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서 열린 손수건 집회에서 우리 교회 공연팀과 간증하는 사람들(사진 ②③④⑤), 핀란드 '축복교회' 집회(사진⑥⑦)와 야외 찬양 페스티벌(사진⑧⑨).

러시아·핀란드 선교팀이 12박 13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월 23일 귀국했다. 이번 선교 일정은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선교팀은 이수진 목사(교역자 회장)를 강사로 핀란드에서 권능의 손수건 집회 및 교회 집회를 진행한 뒤, 러시아로 이동해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또 교회 집회를 각각 인도했다.

6월 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만민교회(담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예수교러시아연합성결회 총회장)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는 에스토니아와 벨로루시에서도 여러 목회자들이 은혜를 사모해 참석했다. 또한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이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로 48시간을 달려오기도 했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의 러시아어 찬양과 아름다운 공연에 이어 강사 이수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증

거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설교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 인간 경작의 섭리, 구세주의 조건 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목회자는 "그동안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 적용되는 성결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2010 이재록 목사 초청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준비를 도운 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에스토니아 TBN 발티아 사장 막심 토마소프 목사도 참석해 "GCN 방송 이재록 박사님 설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전했다.

6월 20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콜리제이 극장에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진행됐다. 현지 찬양팀의 충만한 찬양 후 '2003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 시 설교통역을 담당하던 드미트리 폴라코프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담은 '권능' 영상을 상영한 후 진행된 우리 교회 공연팀의 찬양과 무용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어 강사 이수진 목사는 '믿음'을 주제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에 대해 증거했다. 설교 후 이어진 손수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중 88세의 여성도는 시력이 거의 상실됐으나 이수진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안개가 덮인듯 뿌옇게 보이지 않던 눈이 갑자기 밝아져 사람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으로 간증했다.

또한 왼쪽 편마비였던 성도가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게 됐으며, 목발을 버리고 걷기 시작한 성도, 관절염, 허리 통증, 에이즈를 치료받은 성도 등 많은 사람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한편, 선교팀은 러시아 일정에 앞서 6월 13일에 핀란드에서 찬양 페스티벌과 권능

의 손수건 집회를 가졌다. 현지 공연팀과 우리 교회 공연팀의 찬양 후, 강사 이수진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자 고관절 마비로 인해 지팡이를 의지해 걸던 한 남성이 치료받아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목발을 버리고 걷게 됐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관절염, 알레르기 등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이 외에도 14일에는 핀란드 '축복교회'에서, 21일에는 러시아 가취나 '생명의 양식교회'에서 각각 집회를 인도해 성도들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주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하게 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6)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택했으니 그 자체로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정녕 아브람처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자체가 행복한지 아니면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며 상대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나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손해를 감수했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겉으로는 “당신은 오른편을 택하는 것이 유익하니 나는 당신을 위해 왼편을 택하겠다.” 하며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실은 자기가 좋아서 왼편을 택했으면서 말로는 상대를 위하고 양보하는 척하는 것이지요. 또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데도 오히려 더 사랑받고 인정받네? 언제까지 나만 양보하며 손해를 봐야 하나?’ 하고 서글픔과 불만으로 양보해 주었다면 이도 선한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섬기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 자체를 이뤄야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2.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

세례 요한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별돼 살았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지 않았습니.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렸지요. 마침내 때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니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갔지요. 얼마 후에는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때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만 헌신하다가 젊은 날 감옥에서 죽는구나.’라며 서글픔과 낙심으로 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합니다(요 3:30). 그는 자기들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도 불평, 불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므로 다른 소원들도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서 실상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회피하고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 일을 핑계로 남편과 자녀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 것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지요. 부모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김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앞세운다 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기대한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의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뤄진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이지요.

3. 의무감이나 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섬김으로 하는 마음

비유를 들면, 한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며 탄식을 합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구나. 내가 하려고 기계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려고 살

아야 하나?’ 하며 청소도 눈에 보이는 곳만 치우고 대충 식사 준비를 하며,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를 야단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할까?’ 하며 정성을 담아 일하며 찬양을 부르며 청소를 합니다. 의무가 아닌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요. 남 성도들도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직장 일, 하나님의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사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할 때도 사람마다 마음의 향이 다르지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 다음에는 이 사명을 안 맡아야겠다.’ 하거나 ‘대충하고 얼른 쉬어야지.’ 하면서 건성건성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 없이 성실히 하지만 늘 타성에 젖어 별 의식 없이 합니다. 이 경우는 앞의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요. 그러나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행위로만 아니라 마음의 향으로 봉사합니다. 그럴 때 상대에게도 전달되지요. ‘하나님의 소중한 성전이니 깨끗하게 치워야 성도들이 더 쾌적하게 사용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갚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7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범사에 주를 대하듯, 배려와 섬김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일로 여기며 범사에 섬김과 배려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소자에게도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행할 때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영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과연 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1.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형제끼리 담보를 섰다가 잘못되면 서로 고통을 받고, 원수가 될 수 있기에 담보를 서지 말라(잠 22:26)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자신만을 생각해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보다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며, 혹여 갖지 못하면 불편해 얼굴색이 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 합니다. 아브람은 많은 축복을 받아 조카 롯과 서로 갈라져야 할 상황에 처하자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삼촌인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는데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조카에게 양보했지요.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느끼고 기억하는 것,
또 기억을 떠올려 생각하는 것은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혼의 작용을 할 때도 진리 안에서 해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과연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가르침이 다른 데다 다양한 성장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교양과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식이 다르고,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대부분 시간과 장소,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과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세상에서 잘못 입력된 기준들을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성경과 일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원수를 갚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다. 또 피하고 싶은 전화가 올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금 없다 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는가 하면, 남의 물건을 쓰고 돌려주지 않거나 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과 도적질로 진리에서 벗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며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이든지 진리에 합당하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한다. 처음에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을 보며 '너무 들렌다. 잘난 체 한다.'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만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열심이구나.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 성격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을 '싫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느낌과 감정으로 남지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느낌으로 입력된다.

또한 범사에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상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내 안에 입력시켜야 한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비진리를 보게 되므로 악한 것들에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리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능하면 악한 것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접하게 된다면 그것을 진리로, 선으로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리로 분별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느낀다. 그런데 이미 잘못 입력된 느낌이 있다면 떠올리지 않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가야 한다.

셋째,
범사에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과 경험, 사고방식 가운데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혼의 작용이 일어난다.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말을 가감하기도 하고 판단 정죄하거나 오해해 감정을 품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금강산에 다녀왔는데, 경치가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라고 할 때 '산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라니, 너무 과장해서 말하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자신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아내의 말에 대답도 잘 안하고 통명스럽게 대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곤한가 보다.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하면서 이해하며 오히려 힘을 주고자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늦게까지 기다린 아내를 생각하면 서운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만이라도 상대 입장에서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한다면 가정

의 화평이 깨질 일이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일까?' 하고 쉽게 판단하고 멸시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상대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는다 해도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니 이해하고 품을 수 있으며, 허물을 보아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으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을 수 있다.

물론 상대 입장을 이해해 무조건 잘못을 덮어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거짓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악으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을 해도 이처에 맞게 깨우쳐 주며, 상대가 회개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참된 사랑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쉽지 않은 일들도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말과 행실을 점검하면서 혼의 작용을 진리로 바꿔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불같이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제부터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믿음의 분량 11~15
- 축복 3
- 십자가의 도 16~20
- 헌신의 의미
- 창세기 강해 93~97
- 1차 영혼육 3~7
- 요한일서 강해 3~9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요한계시록 강해 79~8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2~6

GCN TV설교

- 육적인 사랑 2 (이수진 목사)
- 나의 수고는? (이미경 목사)
- 근본 마음 (이희선 목사)
- 읊기 강해 1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0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8 (김수정 목사)
- 연단은 내 탓이다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0
- 옛날 옛적에 11
- English 9
- 즐거운 요리 18
- 내 마음의 찬양 14
- 흥겨운 소리 3
- 창조와 과학 11
- 모두 드려요 30
- 뷰티플라이프 5

해외성회 프로그램

- 뉴욕 연합대성회 3
- 2014 만민 하계수련회 교육 1~2
- 회상 16

2015.06.28~07.04
주요 프로그램 안내

GCN HD 채널
kt allehtv 882번

“네팔 대지진의 재난 속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지난 4월 25일, 네팔에 80년 만에 찾아온 강도 7.8의 대지진과 여진들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낳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네팔만민선교센터가 있는 랄리푸어 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더욱 위험한 수도권 지역이었다. 그런데 만민센터는 물론 196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도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담임 이해천 목사의 간증을 통해 살아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56분경의 일입니다. 네팔에서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날도 어느 때처럼 대예배가 마친 후, 성도들은 식사를 하려고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2시가 채 되기도 전에 7.8의 강진이 왔고, 1시간 이상 계속되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깥도로로 대피했습니다. 저는 3층 성전에 남아 있던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사무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갔지요. 일꾼들이 넘어진 기구들을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할 물건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이 더욱 심해지자 일꾼들과 함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성도에게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닌 일꾼 탓으로 돌린 것 등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으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로로 피신한 성도들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 폭이 좁고 높은 교회건물이 마치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휘청대자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후 1시가 되자, 2시 예배를 기도회로 대체하고 성



이해천 목사 (41세, 네팔만민선교센터)

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를 찾아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뒤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귀가시키고, 교회에 남아 있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건물 뜰에 있는 식당에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오후 5시 45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간이 되자 건물 안으로 들어와 성전에서 GCN 방송 생중계로 서울 본교회에서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마지막 날에 GCN 생방송으로 당회장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네팔만민선교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당시

언론 보도에는 일요일에 전날 강진과 비교할 수 없는 네팔 전역에 걸친 9~12의 초강진과 큰 비, 그리고 히말라야 눈사태 등이 예상돼 어느 누구도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로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 하나 파손되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았습니다. 또 앞뒤 옆집이 무너져도 성도들이 있는 곳은 물론, 지방에 있는 일가친척까지 온전히 보호받았지요. 196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들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네팔은 이번 강진으로 힌두사원, 불교사원 등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곳들이 집중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만민의 성도들은 온전히 보호받은 사실을 통해 네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의 섭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2005년 11월에 네팔 선교사로 파송돼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서 대지진의 참변을 당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복음의 불모지인 네팔에서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담대히 전하는 영적 장수로서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은 무엇 하나 파손된 것이 없어요”

수스미타 실알 (34세)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호수 한 가운데에 오래된 힌두사원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곳이 정면으로 보였지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큰 사원이 지진으로 호수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가스통 위에 놓아 둔 병과 그릇 등 무엇 하나 파손된 것이 없었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힌두사원은 사라졌는데 제 일터는 무사했어요”

산자야 사카 (26세)

저는 옷감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데 가게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힌두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힌두사원이 밀집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가게 바로 옆에 있던 힌두사원이 지진으로 인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는 무사했습니다. 목자의 공간을 체롭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부모님의 오래 된 흙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비가일 따망 (37세)

시아머니는 전에 가정불화로 맹독성 농약을 마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살아나셨습니다. 지방에서 매우 오래 된 흙집에 살고 계시는데, 지진 발생 당시 홀로 집에 계셨지요. 주위 모든 집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당회장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시부모님 맥만 멀쩡했고 시어머니도 무사하셨습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